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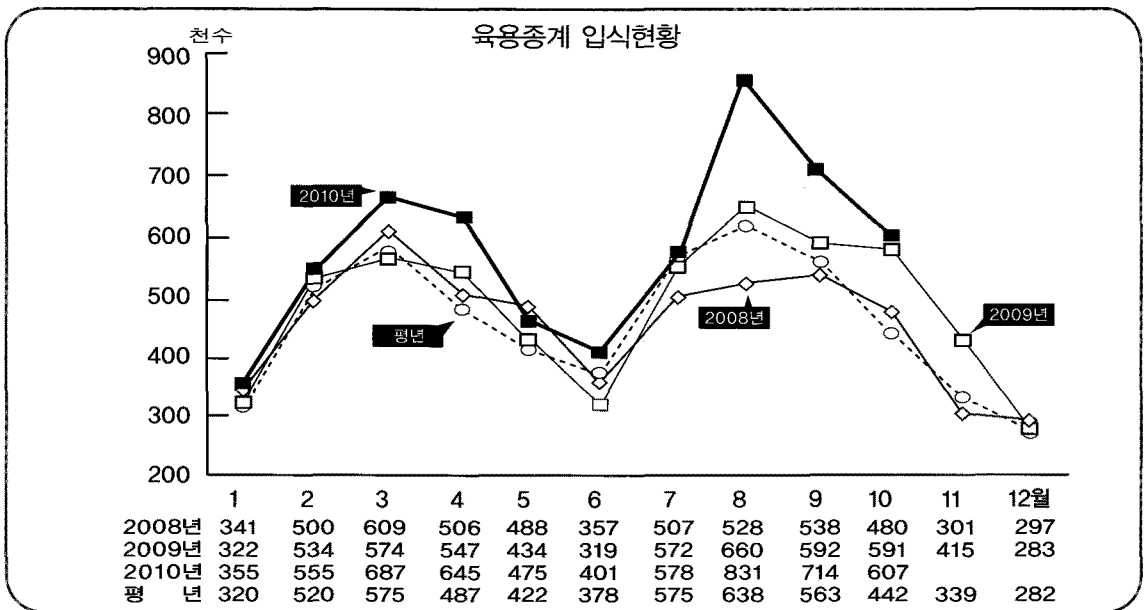
통계

12월 닭고기 수급 전망

1. 육용종계 입식현황

■ 10월 육용종계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2.7% 증가

- 10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60만6천6백수로 전년동기(59만5천수) 대비 2.7% 증가했으며, 이는 평년수준(44만2천수) 대비 37.2% 증가한 수준이다(9월 71만3천6백수 대비 15.0% 감소).
- 올해 10월까지의 누계 역시 5백84만9천수로 전년동기간 누계(5백16만3천수) 대비 13.3% 증가했다. 전반적인 종계 생산성 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별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어 종계입식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. 종계 D/B상의 10월 육용종계 사육수수는 7백10만7천수로 전년동월(5,962천수) 대비 19.2% 증가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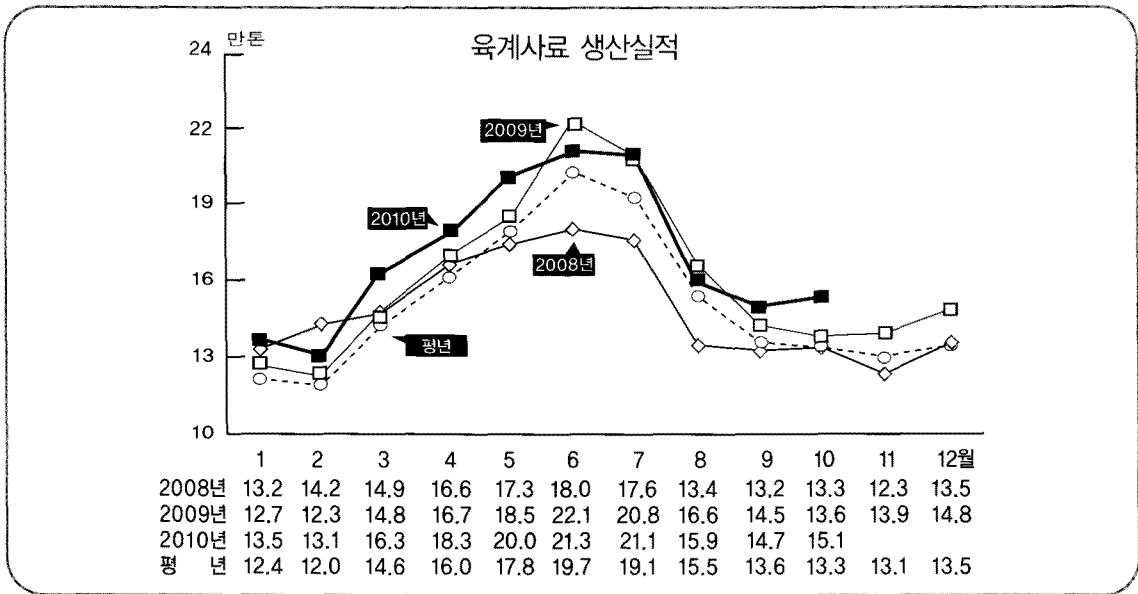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대한양계협회

2. 배합사료 생산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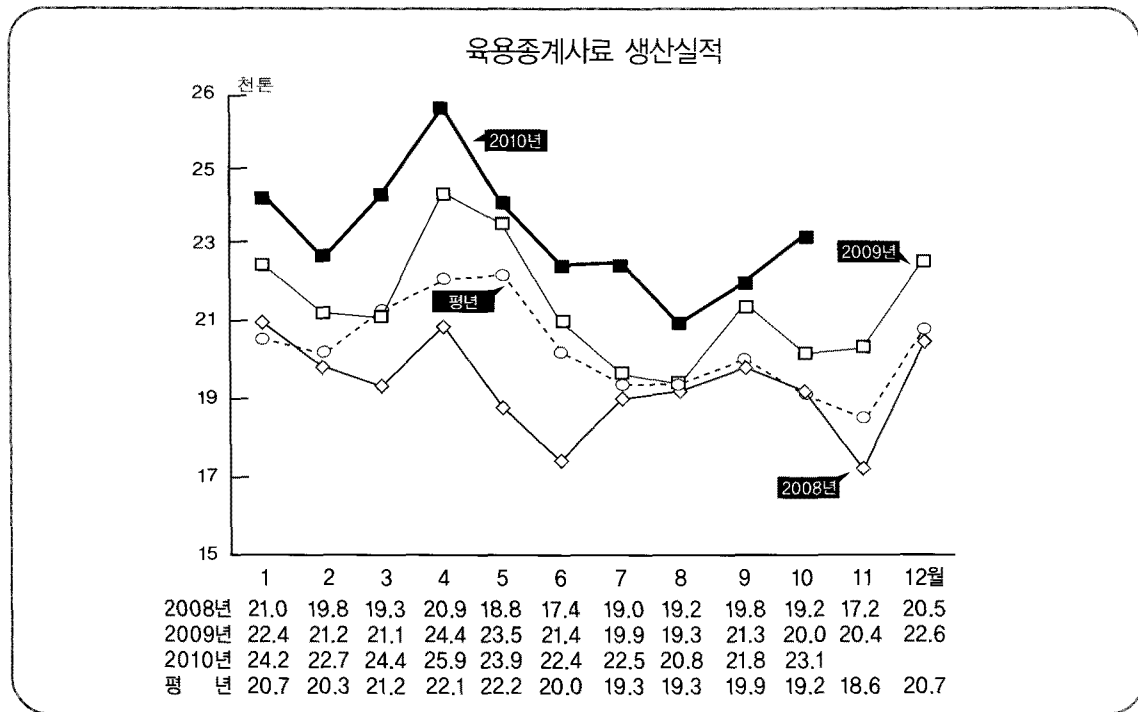
■ 12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

- 12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10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3,077톤으로 전년동월(20,033톤) 대비 15.2% 증가했으며, 전월(21,839톤) 대비해서는 5.7% 증가했다. 종계의 생산성은 전년기준 대비 15%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 육계 생산성은 10% 이상 향상된 것으로 보아 육계사육수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편 10월 육계배합사료 생산량은 151,397톤으로 전년동월(135,808톤) 대비 11.5% 증가했으며, 전월(146,944톤) 대비해서는 3.0% 증가했다. 12월 육계사육마리수는 전년동월 대비 14.4% 증가한 7,687만수로 전망된다.


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
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생산량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림수산식품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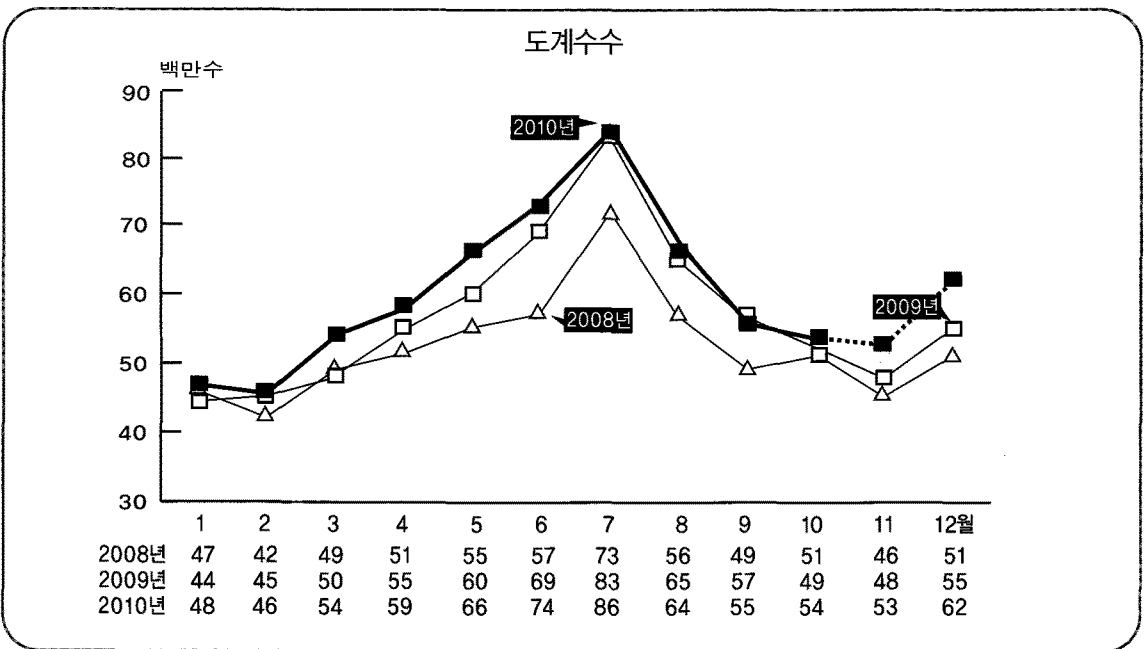


12월 닭고기 수급 전망

3. 도계수수

■ 12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

- 10월의 도계수수는 5,429만수로 전년동월(4,950만수) 보다 9.7% 증가했으며, 전월(5,518만수) 대비 1.6% 감소했다.
- 12월에는 잠재력 및 육계사육수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여 도계수수는 전년(5,477만수) 보다 14.1% 증가한 6,249만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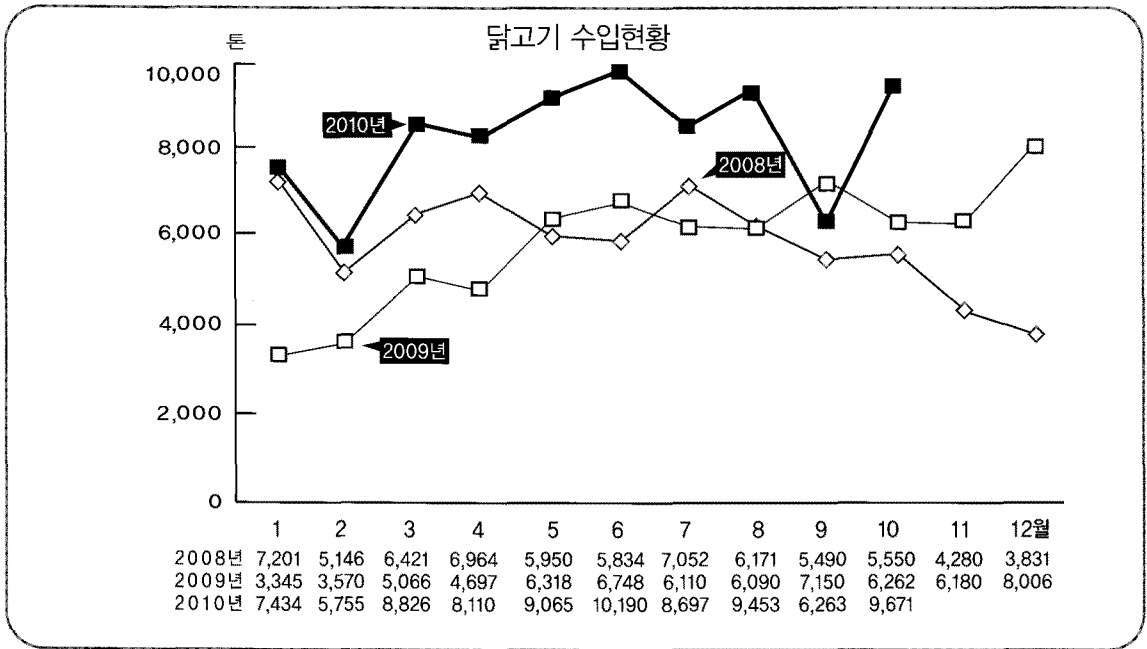


※자료 : 립수산식품부(2010년 11~12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)

4. 닭고기 수입현황

■ 12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 예상

- 10월에는 9,671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(6,262톤) 대비 54.4% 증가했으며, 전월(6,263톤) 대비해서도 54.4% 증가했다. 검역기준 수입량은 8,182톤으로 전년동기(6,444톤) 대비 27.0% 증가했으며, 전월(10,212톤) 대비해서는 19.9% 감소했다.
- 올해 10월까지의 수입누계가 검역기준으로 8만6천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누계대비 75.7%가 증가했다. 올해 초 국내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신규 수입업자들의 진출로 주로 미국산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했다. 하지만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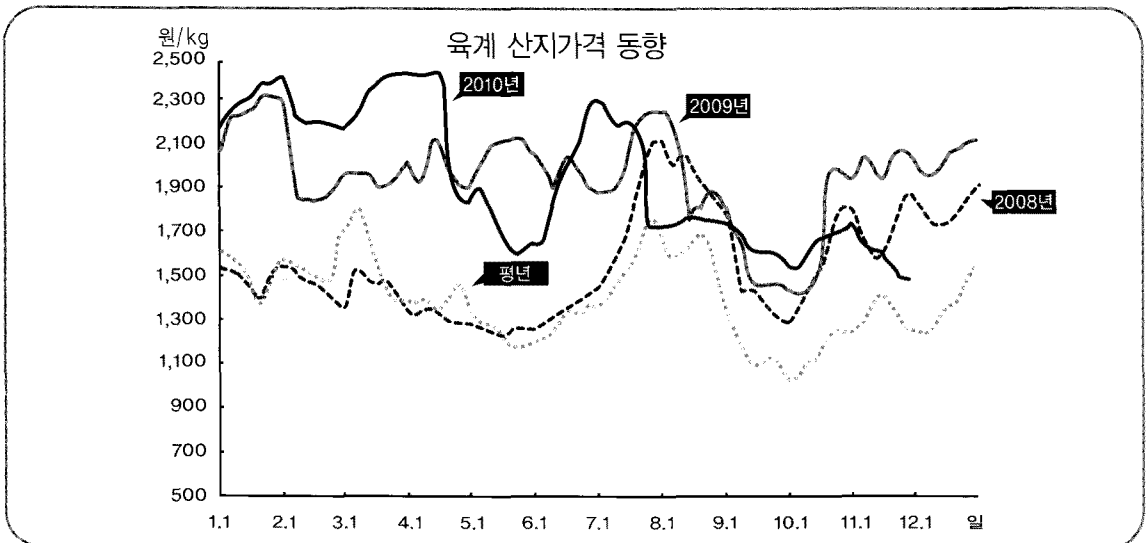


※자료 : 농수산물무역정보

5. 가격동향

■ 12월 육계산지가격 평균 1,500~1,700원 전망

• 11월에는 10월 중순 이후 소비감소 경향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침체상황이 계속 되었다.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면



※주 : 평년은 2005~2009년의 가격 중 최대, 최소를 뺀 평균

※자료 : 농협, 축산물 가격정보(5일 이동평균가격)



통계

12월 닭고기 수급 전망

서 회복세를 기대했으나 전혀 소비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김장철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소비침체가 심화되었고, 연평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산지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. 11월(1~28일) 평균 산지시세는 1,613원을 나타냈다(전년 11월 1,994원보다 19.1% 하락, 평년가격 1,384원보다는 16.5% 상승, 전월 1,647원 대비 2.1% 하락).

- 12월의 경우 수입물량은 소폭 감소하나 도계마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, 비축량도 증가하는 등 공급량은 12.2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, 소비는 5%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소비증가 시기가 있어 월말로 가면서 가격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. 12월의 육계 산지가격은 전월 및 전년보다는 하락한 1,500~1,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(전년 12월 가격은 2,029원, 평년가격은 1,519원).

6. 수급자료

〈육계 및 삼계 입식·비축현황〉

(단위: 천수)

기간	육계						삼계					
	입식			비축			입식			비축		
	2009년	2010년	전년대비	2009년	2010년	전년대비	2009년	2010년	전년대비	2009년	2010년	전년대비
10. 11~10. 17	6,923	7,778	112.4%	2,270	3,682	162.2%	1,244	1,430	115.0%	1,460	510	34.9%
10. 18~10. 24	6,788	7,940	117.0%	2,183	3,722	170.5%	1,190	1,480	124.4%	1,461	510	34.9%
10. 25~10. 31	7,080	7,957	112.4%	2,034	3,666	180.2%	1,200	1,400	116.7%	1,857	510	27.5%
11. 1~11. 7	7,072	8,088	114.4%	1,903	3,539	186.0%	1,210	1,490	123.1%	1,851	503	27.2%
11. 8~11. 14	7,142	8,124	113.7%	1,835	3,729	203.2%	1,220	1,530	125.4%	1,852	501	27.1%

7. 결론

- 12월에는 연말 소비증가요인이 있으나 최근 1~2개월 간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측면을 볼 때 수입량은 일부 감소하나 종계 사육수수 증가 및 육계 생산성 회복에 따라 육계 사육수수가 늘어나 소비량 대비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,500원~1,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다만 최근의 소비감소추세가 연말 수요증가시기에 회복될 경우 시세는 예상치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. 하지만 공급량 증가폭이 크며 올해 하반기 들어 소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수준은 약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시세변동요인

구분	생산(공급) 측면	소비(수요) 측면
인상요인	- 수입량 감소 예상 - 날씨가 예년보다 추울 경우 생산성 하락	-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소비증가 시기로 소비회복 기대 - 원산지표시 제도 확대 시행으로 국내산 수요 증가 기대
하락요인	- 종계 및 육계수수 증가로 생산량 증가 (증가폭 확대)	- 4/4분기 소비감소 추세 유지